

##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김 혜 정

정 경 미

이 승 아<sup>†</sup>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를 지각한 고등학생과 아닌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고, 도덕성 점화 메시지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고등학생 1,035명에게 한국 과보호 양육 척도(Korean-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K-POS)를 실시하고, 과보호 수준이 평균에서 1.5SD 이상인 학생(과보호 집단)과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비과보호 집단)을 각각 33명씩 선발하였다. 그런 다음, 컴퓨터 과제를 통해 가상의 파트너에게 동전 개수를 자문해 줄 때 정확한 정보를 줄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 충돌 상황을 설정하고 두 집단의 도덕적 행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 집단이 비과보호 집단에 비해 상대방에게 속인 동전의 개수가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이와 같은 과보호 집단의 사익 추구 행동은 도덕성 점화 메시지 제시 후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가 고등학생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도덕성 점화 메시지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단서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과보호 양육 태도, 도덕적 행동, 도덕성 점화, 고등학생, 이익 충돌

\* 본 연구는 2017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7S1A5A2A01023824), 1저자의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7536, E-mail: [foryou@yonsei.ac.kr](mailto:foryou@yonsei.ac.kr)

청소년기는 도덕적 인지 발달과 행동 수행의 분수령으로 간주된다(Hart & Carlo, 2005; Smetana & Turiel, 2003).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를 사회적 관계와 과업의 범위가 넓어지며 아동기에 습득한 사회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기이자, 윤리 의식을 갖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초가 확립되는 단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회인지적 관점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이 단순히 사회 관습과 윤리에 대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정하며 이루어진다고 본다(Kohlberg, 1984). 이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정해진 규칙에 복종하는 타율적 도덕성 단계를 벗어나, 타인의 입장과 상호 간의 기대를 더 잘 이해하고 사회적 권위에 기초한 추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실적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한편,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도덕성의 발달을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이를 강화 또는 처벌받으며 사회적 규칙을 내재화하는 학습 과정으로 보는데(Bandura & Walters, 1963), 청소년기는 이 과정에서 부모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를 지나 또래나 기타 주변인 등으로 사회화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Larson & Richards, 1991).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크게 개인적 과정과 사회적·맥락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는 주로 인지, 정서 등 심리 과정의 발달과 신체적 성숙, 성별 등을 들 수 있다(Carlo, Fabes, Laible, & Kupanoff, 1999; Fabes, Carlo, Kupanoff, & Laible, 1999). 또한, 기질 및 성격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데, Eisenberg와 Fabes(1992)는 기질 특성과 도덕적 행동 간 연관성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모 및 가족(Eberly & Montemayor, 1999; Krevins & Gibbs, 1996; Smetana, 1999), 또래(Barry & Wentzel, 2006; Biddle, Bank, & Marlin, 1980; Schonert-Reichl, 1999), 학교나 자원봉사 같은 사회 기관 및 문화

활동(Hart, Atkins, & Ford, 1998; Regnerus, 2003)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개인적·사회 맥락적 요소들은 상호 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 통제와 지각된 양육 방식, 학년이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하영희, 김경연, 2003),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공감 능력을 매개로 도덕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Carlo, McGinley, Hayes, Batenhorst, & Wilkinson, 2007).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사회화 요소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족을 포함한 부모의 역할이다(Bednar & Fisher, 2003; Hart & Carlo, 2005).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사회적 모델로서,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또래 관계 및 사회적 활동을 중재 또는 통제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Carlo et al., 1999). 청소년기에는 또래나 미디어 등 가정 외 사회화 요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자녀가 도덕적 가치와 행동을 내재화하는 데 필수적이다(Padilla-Walker, 2007). 아울러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은 자녀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성격 형성 등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여러 개인적 발달 과정에도 중요하다(Smetana, 1999).

전통적으로 도덕성 발달과 이론적으로 관련지어지는 양육 태도의 두 가지 차원은 자녀와의 상호 작용 시 부모가 보여주는 긍정적 정서성과 반응성인 '지지', 그리고 행동적 규범 제시 및 엄격함으로 정의되는 '통제'이다(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도덕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주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은 청소년의 공적 책임감 및 도덕적 행동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인 반면(정종화, 1997; Gunnoe, Hetherington, & Reiss, 1999),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수준과 부모의 통제 및 보호 수준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Leahy, 1981). 또한, Walker와

Hennig(1999)이 아동 및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 연구에서는 실생활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부모-자녀 간 상호 작용 시 자녀의 자율적인 의견을 촉진하고 지지해주는 부모의 자녀들이 2~4년 후 높은 도덕적 추론 능력을 보인 반면, 통제적이고 간섭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도덕적 발달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밖의 관련 문헌들을 종합하면, 특정 양육 기술이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지, 반대로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특성이 높은 자녀가 덜 통제적인 훈육을 이끌어내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영향은 상호적으로 생각된다(Carlo et al., 1999). 그럼에도 자녀가 스스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양육이 도덕성 발달에 긍정적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 동향을 살펴보면, 자녀 수 감소와 가정 경제 성장 등의 변화와 함께 자녀의 모든 활동과 어려움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통제하는 과보호가 세대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명희, 권지혜, 2009; Gibbs, 2009). 특히 한국은 임시 경쟁이 치열해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성공에 양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정은영, 장성숙, 2008), 타 문화권에 비해 타인의 평가를 중시하며(Kim & Cohen, 2010), 자녀와 부모 간의 일체감을 중시하는 문화가 이러한 양육 태도를 심화 시킨다고 설명된다(박영신, 김의철, 2002; Yeh & Huang, 1996). 과보호 양육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로 애정과 통제, 보호를 필요 이상 쏟음으로써 자율성 발달을 저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Thomassgard & Metz, 1993). Locke, Campbell, Kavanagh(2012)은 과보호가 자녀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 환경에 노출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문제 해결 전략과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가 도덕적 가치와 규범, 행동의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는 과

정으로 개념화됨을 고려할 때, 과보호 양육은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덕성 연구와 교육에서 오래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도덕적 판단에 여러 개인적, 사회적 책임 간 딜레마가 존재하고, 도덕적 행동에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압력 간의 충돌이 수반되는 동시에 외적 보상이나 처벌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의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이다(Saltzstein, 1994). 이에 연구 시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Walker & Hennig, 1999), 실험 설계를 통해 도덕적 행동이 수반되는 상황을 설정하여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이익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 상황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나 공적 이익을 위반할 잠재적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딜레마의 성격을 지니며(Luebke, 1987),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Moore, Tetlock, Tanlu, & Bazerman, 2006).

더불어, 행동에 대한 상황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인 ‘점화(priming)’란 개인이 특정 자극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고가 활성화되어 행동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Bargh & Chartrand, 2000). 도덕적 가치나 규범은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내면화되며,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Schwartz, 1977), 도덕적 규범에 대한 점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를 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익 충돌 상황을 설정하고, 과보호 양육뿐만 아니라 도덕적 점화 메시지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 과보호 양육 태도와 도덕성 발달

Levy(1938)는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하며 '과보호(overprotection)'를 과도한 신체적·사회적 접촉, 유아기적 돌봄의 연장, 독립적 행동의 저해, 지나친 통제 혹은 제멋대로 하게 두는 방임의 요소로 정의하였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양육'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이용화 외, 2014; 최미혜, 2015), 이는 Cline과 Fay(1990)가 처음 기술한 것처럼 특히 청소년이나 초기 성인기 자녀의 주위를 맴돌며 자율적 발달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양육 형태를 지칭한다(Padilla-Walker & Nelson, 2012). 그러나 과보호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비해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된 의견이다(Ungar, 2009; van Ingen et al., 2015).

과보호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도덕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된다. 한 국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정, 책임, 청렴 요인으로 구성된 도덕성 자기 보고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이정훈, 2008).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 태도와 도덕 판단 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외 연구에서도 과보호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주, 2013; Tavecchio, Stams, Brugman, & Thomeer-Bouwens, 1999). 또한, 과보호와 자녀의 학업 부정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남자 고등학생을 부모로부터 과잉 간섭을 받았다고 보고한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도덕적 행동을 평가한 연구에서 과잉 간섭 집단이 학업 부정행위를 더 많이 보였고(조인호, 2012),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시험 부정행위를 한 대학생 집단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윤성연, 정경미, 2014). 반

면, 상반된 결과의 연구들도 일부 있다. 일례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가 남학생의 도덕 판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학생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성희, 2009). 또한, 18세 이상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와 도덕적 판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almer & Hollin, 1997).

이처럼 과보호 양육 태도와 청소년 도덕성 발달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이다. 이는 많은 연구자가 과보호를 하나의 역기능적인 양육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양육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과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문제로 개념화(Padilla-Walker & Nelson, 2012; Thomasgard & Metz, 1993)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어 보인다. 즉, 과보호를 다양한 양육 행동의 조합과 연속선상에서 정의함에 따라 연구마다 조작적 정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보호가 개념상 수용적이면서도 개입적이고, 관심이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무관심한 태도가 혼합되어 있어 연구에 제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박아청, 1998). 또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덕 추론이나 판단에 초점을 두고 있어 도덕적 행동을 지표로 삼은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보호 양육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고등학생 자녀의 도덕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이익 충돌 상황과 도덕적 점화

이익 충돌이나 점화와 같은 상황적 요소들은 내재화된 도덕적 규범이나 목표, 특질 등으로 구성된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quino, Freeman, Reed II, Lim, & Felps, 2009).

Cain, Loewenstein과 Moore(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문가가 추정자에

게 동전이 든 병의 액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동전 개수에 대한 추정자의 추정치가 정답에서 가까울수록 자문가의 보상이 줄어드는 이익 충돌 상황을 설정하여 자문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행동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익 충돌 상황에 놓인 집단들이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사의 추구 행동을 보였다. 그 밖에 김남호와 정경미(2017), 김수빈, 김지혜, 정경미(2016), Church와 Kuang(2009), Sah와 Loewenstein(2014) 등도 유사한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도덕적 행동의 일환으로 사의 추구 행동을 유도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익 충돌 상황의 공개,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사의 추구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 전략의 효과성을 탐색했다.

한편, Aquino 등(2009)은 십계명을 외우거나 도덕적 단어를 사용하여 글쓰기를 하는 등의 도덕성 점화를 사용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행동이 감소하거나 공공재 게임에서 타인에게 더 많이 협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Welsh와 Ordóñez(201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도덕적 의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점화 과제를 수행한 후, 도덕적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 더 윤리적으로 응답했고, 타인의 감독이 없이도 자신을 푼 시험 문제의 개수를 속이는 부정직한 행동이 줄어들었다. 그 밖에도 신에 대한 개념을 점화시키는 장치로 타인에 대한 협력 및 친사회적 행동이 늘어나는 등(Shariff & Norenzayan, 2007), 다수의 연구에서 도덕적 점화의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점화는 개인이 자극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의식적 수준과 그렇지 않은 무의식적 수준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Bargh & Chartrand, 2000), 두 가지 모두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Greenwald, Draine, & Abrams, 1996). Greenwald 등(1996)은 의식적 수준에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점화가 행동 변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광고나 캠페인같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설득적 형태의 점화가 더 빈번하고 현실적이다(김종훈, 2012). 일례로 Mazar, Amir와 Ariely(2008)는 1인칭 서술문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명예 규정(honor code)을 제시하여 도덕적 규범을 상기시켜줌으로써 부정직한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 점화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도덕성 점화라는 상황적 요소를 추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동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연구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과보호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이 부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도덕적 점화 메시지가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것이라는 가설하에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과보호 양육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한국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점수가 높은 집단(과보호 집단)과 평균인 집단(비과보호 집단)을 선별하고, 이익 충돌 상황에서의 도덕적 행동을 평가하는 행동 과제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행동 과제 시 도덕성 점화 메시지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 방법

#####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연구자 중 1인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1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학생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총 1,035명에게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이때 학생들이 연구 주제를 알게 되어 결과가 왜곡되거나 '과보호'라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부모-자녀 관계가 고등학생의 자문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공지하고, 설문지에 '부모님에게 느꼈던 것'을 가장 잘 나타낸 항목에 표시하게 했다. 설문은 각 교실에서 연구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 번에 약 35명씩, 5분간 연구자 중 1인에 의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전체 1,035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014명을 대상으로, 행동 연구에서 집단 당 최소 30명 이상의 배치를 권장하는 이론적 지침(Roscoe, 1975)과 과보호 설문 점수가 상위 2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도덕적 행동을 살펴본 선행 연구(조인호, 2012)를 참조하여 부모 모두의 과보호 척도 합계 점수가 평균보다 1.5표준편차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 33명과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중 33명을 무선 선발했다. 실험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16세~18세였고 평균 16.7세( $SD = 0.8$ )였다. 또한, 과보호 집단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척도 점수 합의 평균은 117.17점( $SD = 4.62$ ), 비과보호 집단의 평균은 81.91점( $SD = 6.22$ )으로, 두 집단 간 과보호 척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 $t(64) = 19.96, p < 0.01$ ]. 선발된 66명 중 학번을 기재하지 않아 식별할 수 없는 1명과 자퇴 학생 1명을 제외한 64명에게 실험 참여를 요청했고, 그중 법정대리인과 본인이 모두 동의한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그 후 데이터 확인 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웹 서버 오류로 총 2회의 실험 응답(타인에게 알려준 동전 개수) 중 1회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13건, 그리고 2회 응답 중 1회라도 전체 평균 (34.5개)에서 3표준편차 이상 벗어나(예: 121개) 이상치(outlier)로 판단된 3건을 제외하고 총 33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유의 수준 .05, 효과 크기 .25를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에 대한 표본 크기의 검정력을 사후 분석한 결과, 검정력은 .5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7001988-201702-SB-113-03).

### 측정 및 실험 도구

####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특수적 문화에 적합하게 개발된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orean-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정경미, 윤성연, 201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적 성공과 관련한 성취에 더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 '성취 지향(4문항, 예: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성취를 기대하신다.")', 자녀의 심리, 행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관련한 '통제(4문항,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원하신다.")', 자녀의 감정을 자신과 동일하게 보고 자녀의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동일시(3문항, 예: "부모님 자신에 대한 비판보다 나에 대한 비판을 더 참지 못하신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자녀 양육 방법의 잣대로 삼는 '체면 중시(4문항, 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집안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옷과 물건을 사주신다.")' 등, 총 4개 하위 영역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며, 부모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모 중 1명에 대한 총점의 범위는 5~75점, 부모 모두의 합계 총점 범위는 10~15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과보호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정경미와 윤성연(201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부모 각각 .76과 .72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부모 모두 .83이었다.

#### 자문가-추정자 게임 컴퓨터 과제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남호와 정경미(2017)가 선행 연구(Cain et al., 2005;

Sah & Loewenstein, 2014)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 기반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가 컴퓨터로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과제를 수행하면 결과는 웹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본 과제는 연구 참가자에게 가상의 파트너에게 동전 개수를 자문하는 역할을 주고,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 충돌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관찰한다. 게임은 사전 게임과 본 게임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 게임

참가자에게 자문가-추정자 게임에 필요한 시각적 탐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그림 찾기 게임'을 5회 실시한다고 공지하였다. 제한시간 20초 동안 한 쌍의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 화면을 클릭하는 게임이며, 게임 결과 이긴 사람은 자문가 역할, 진 사람은 추정자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안내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참가자가 자문가로 선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자신이 파트너에 의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자문가로 선정되었다고 인식하도록 모든 참가자가 2회는 패배하고, 3회는 승리하게 조정하였다. 모든 참가는 "CONGRATULATIONS 자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본 자문비로 사이버 머니 150,000원을 제공받았고, 컴퓨터 화면 하단에 자문비 금액이 표시되었다.

### 본 게임

참가자에게 "본 게임은 동전 개수를 세는 과제로, 자문가와 추정자가 동일한 동전 사진을 보고 게임을 수행하되, 자문가는 사진을 20초 동안 보고 동전이 몇 개인지 추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추정자는 5초밖에 사진을 볼 수 없으므로 자문가의 도움을 받아 동전 개수를 정확히 맞혀야 한다."고 안내했다. 즉, 자문가는 충분한 시간 동안 사진을 보고 동전 개수를 헤아릴 수

있지만, 추정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자문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시 시간은 선행 연구들(김남호, 정경미, 2017; 김수빈 등, 2016; Cain et al., 2005)에서 10초~15초였음을 참고하여 자문가가 사진 개수를 세는 데 충분하도록 20초로 설정하고, 참가자가 자문 동전 개수를 숫자로 입력하면 "입력하신 정보를 파트너에게 전달 중입니다."라는 문장을 5초간 보여주었다.

### 실험 절차

설문 조사(K-POS)를 바탕으로 선정된 실험 대상자 49명을 공간 제약상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학교 컴퓨터실에서 실험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 소요시간은 1회당 30분이었으며, 시행 시 나머지 학생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실험 보조 교사 1인과 함께 대기하여 서로 접촉하지 않게 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실에 입실 후 일정 간격을 두고 차석하여 약 5분 동안 과제 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았다. 먼저 참가자에게 컴퓨터 실 안의 모든 사람 중 무작위로 짹지어진 다른 1명의 참가자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동전 개수를 세어 맞히는 '자문가-추정자' 게임을 수행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추정자'는 본 게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자문가'는 파트너가 게임을 잘 수행하여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자문가는 150,000원의 사이버 머니를 기본으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문비를 획득하게 되고, 추정자는 기본금 없이 게임을 잘 수행할수록 많은 보상금을 얻게 됨을 알려주었다. 또한, 최종 획득한 사이버 머니 액수에 따라 문화 상품권이 보상으로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표 1과 같이 공지하였다.

본격적인 '자문가-추정자' 게임에 앞서, 표 2와 같이 화면에 자문가의 '추가 자문비 지급 공식'과 추정자의 '보상금 지급 공식'을 보여주었다. 자문가는 파트너가 응답한 동전 개수와 실

표 1. 보상 지급 공식

사이버 머니	보상
210,000~300,000원	문화 상품권 10,000원
110,000~200,000원	문화 상품권 5,000원
0~100,000원	0원

제 동전 개수의 차이가 클수록 자문비를 더 많이 받게 되고(1개당 1만 원), 추정자는 자신이 말한 동전 개수와 실제 동전 개수의 차이가 작을수록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핵심이다. 즉, 참가자는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문가의 책임과 개인의 재정적 이익이 서로 어긋나는 이익 충돌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어 참가자가 추가 자문비 지급 공식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시 과제를 제시했다. 추가 자문비 지급 공식을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연구원이 추가 설명을 제공하게 했다.

이후 1회의 연습 시행과 도덕성 점화가 없는 일반 자문 1회, 점화를 사용한 자문 1회가 순서대로 실시되었고, 제시된 동전의 개수는 각각 35개, 40개, 30개였다. 2차 자문 과제 시작 전에는 “당신의 부정직한 자문이 상대방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라는 점화 메시지가 3초간(맑은 고딕체, 글자 크기 32pt) 제시되었다. 점화의 순서는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건 간 역균형화를 위해 일부 참가자에게 점화 메시지를 먼저 제시할 경우, 이후 행동에도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클릭하여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인적 사항(연령, 성별)과 본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 답한 후, 본인이 예상한 연구 가설과

연구 참여 시 느낀 점 또는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과제를 종료한 후에는 사후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본래 목적과 함께 모든 참가자가 자문가로 배정되었음을 설명했으며, 게임에서 획득한 사이버 머니 액수에 따라 보상물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 점에 양해를 구하고 모두에게 문화상품권을 5,000원 씩 지급했다. 전체 실험 참가자 중 연구의 가설을 유추하거나 실험 조작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학생은 없었다.

#### 종속 변인

#### 도덕적 행동

본 게임에서 화면에 제시된 실제 동전 개수와 참가자가 자문한 동전 개수의 차이인 ‘속인 동전 개수’가 많을수록 도덕적 행동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 분석 방법

IBM SPSS Window ver. 24.0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사전 분석으로 종속 변인인 속인 동전 개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와 함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Shapiro-Wilk 검정 결과, 1차 자문 시 남학생 집단과 과보호 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랐지만, 여학생 집단과 비과보호 집단, 2차 자문 등 나머지의 경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여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종속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고, 1차 자문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이어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따라 과보호 양

표 2. 추가 자문비와 보상금 지급 공식

자문가 추가 자문비	$ \text{파트너가 추정한 동전 개수} - \text{실제 동전 개수}  \times 10,000\text{원}$
추정자 보상금	$100,000\text{원} - ( \text{추정자가 추정한 동전 개수} - \text{실제 동전 개수}  \times 10,000\text{원})$

육 수준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덕성 점화가 없는 첫 번째 시행에서 성별 요인을 통제하고 집단(과보호/비과보호) 간 속인 동전 개수에 대해 순위 공변량 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했다. 두 번째로 집단과 도덕성 점화 유무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산분석 시 권장되는 비모수적 방법 (Wobbrock, Findlater, Gergle, & Higgins, 2011)인 순위 변환(aligned rank transform) 후, 속인 동전 개수를 종속 변인으로, 집단(과보호/비과보호)과 도덕성 점화 여부(점화/비점화)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 결과

### 사전 분석

실험에 참가한 총 33명 중, 남자는 15명, 여자는 18명이었으며, 1학년은 15명,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9명씩이었다. 참가자의 집단별 인원 구성은 표 3과 같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종속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으로 각각 확인한 결과, 학년에 따라 속인 동전의 개수는 도덕성 점화가 없는 1차( $p = .825$ )와 도덕성 점화가 있는 2차 과제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062$ ). 그러나 1차 과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Z = -1.981$ ,  $p < .05$ ], 남학생의 도덕적 행

표 3. 집단별 인원 구성

성별	과보호 집단 ( $n = 15$ )		비과보호 집단 ( $n = 18$ )	
	남	여	남	여
	8	7	7	11
학년별	1	2	2	7
	3	6	6	3

동이 더 낮은 모습이었다(표 4). 2차 과제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 = .49$ ).

### 과보호 양육 태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과보호 양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이 자문 과제에서 속인 동전의 개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도덕성 점화가 없는 1차 시행의 결과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사전 분석에서 성별에 따라 종속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비모수 검정 방법인 순위 공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보호 집단이 자문 과제에서 더 많은 동전 개수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F(1, 31) = 10.322$ ,  $p < .01$ ). 참고로 과보호 집단이 속인 동전의 개수는 평균 5.53개( $SD = 2.56$ ), 비과보호 집단이 속인 동전의 개수는 평균 2.22개( $SD = 3.26$ )였다(표 5).

표 4. 성별, 학년별 속인 동전 개수

성별	점화 없음(1차)		점화 있음(2차)		
	$M(SD)$	평균 순위	$M(SD)$	평균 순위	
성별	남( $n = 15$ )	5.07(3.79)	20.60	1.67(2.69)	15.87
	여( $n = 18$ )	2.61(2.57)	14.00	2.06(2.41)	17.94
학년별	1( $n = 15$ )	4.00(3.51)	17.93	1.27(2.37)	14.60
	2( $n = 9$ )	3.44(4.28)	15.44	1.33(2.18)	15.22
	3( $n = 9$ )	3.56(2.30)	17.00	3.44(2.60)	22.78

표 5. 집단·도덕성 점화 유무에 따른 속인 동전 개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화 없음(1차)	점화 있음(2차)	전체
과보호 집단	5.53(2.56)	2.40(2.67)	3.97(1.81)
비과보호 집단	2.22(3.26)	1.44(2.36)	1.83(2.13)
전체	3.73(3.37)	1.88(2.51)	2.80(2.24)

### 과보호 양육 태도와 도덕성 점화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집단(과보호/비과보호)과 도덕성 점화(유/무)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변환(aligned rank transform) 후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사전 분석 시 종속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집단과 도덕성 점화의 상호 작용 효과 $[F(1, 30) = 6.16, p < .05]$ 와 집단의 주효과 $[F(1, 30) = 12.21, p < .01]$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과보호 집단이 비과보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사익 추구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도덕성 점화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점화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p = .08$ ).

###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를 지각한 고등학생과 아닌 학생들 간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 점화 메시지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실험적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의 충돌 상황에서 과보호 집단은 비과보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사익 추구 행동, 즉 더 낮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보였고, 이는 도덕성 점화 메시지를 통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보호 양육 태도가 자녀의 비과보호 집단보다 이의 충돌 상황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도덕적 행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 수준과 시험 부정행위의 연관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선행 연구(윤성연, 정경미, 2014; 조인호, 2012),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과 자율은 고등학생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통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정훈, 2008) 결과와 부합한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보호 양육 태도는 치열한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아정, 1998; 정은영, 장성숙, 2008).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집단은 높은 교육열과 학업적 성취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과보호와 그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취와 실패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방희정, 2000). 이에 자녀는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박병기, 임신일, 2010; Yeh & Huang, 1996), 이는 원칙을 어겨서라도 성공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어머니의 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병리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이정훈, 2008)를 살펴보면, 심리적 병리성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 “잘못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준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부패한 한국 사회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는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 과보호 양육 태도를 통제와 동일시, 성취와 체면 중시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과보호 집단의 도덕적 행동이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육 태도가 자녀의 근시안적 이기주의, 청렴에 대한 유보적 태도 및 충동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도덕성 점화 메시지가 과보호 집단의 사익 추구 행동을 낮추는 데, 즉, 도덕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충돌 컴퓨터 과제 시 자문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차 자문 직전 “부정직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점화 메시지를 제시하였고, 이후 과보호 집단의 사익 추구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따라서 도덕성 점화 메시지가 사익 추구 행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화의 주효과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는 비과보호 집단에서 점화 전에도 사익 추구 행동 수준이 낮았기 때문일 수 있겠다. 즉, 바닥 효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전 분석 시 점화 전 조건에서 남학생이 속인 동전의 개수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고 점화 후에는 감소했으나, 여학생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는데(Fabes et al., 1999),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나 개인의 특성 등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행동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행동에 대한 결과나 목표를 강조하는 설득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Jung & Villegas, 2011; Meyers-Levy & Maheswaran, 200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사후 설문 중 실험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

하라는 문항에서 “중간에 나온 어떤 문구(도덕성 점화 메시지) 때문에 양심에 찔렸다.”, “중간에 나온 말(도덕성 점화 메시지)을 보고 파트너에게 원래 알려주려던 숫자를 써넣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게 되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부끄러웠다.” 등 점화 메시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대답이 많았다. 이는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점화가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동기와 행동을 촉진한다는 이론적 기제에 대한 근거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소한 환경적 개입으로 도덕적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비록 점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소인 까닭에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 ·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고 도덕적 행동이 중요한 장면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 부정행위나 논문 표절 등 학업과 관련된 부정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보다 넓게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비리 및 도덕적 해이를 줄이거나 다양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후속 연구를 통해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기제의 추가적인 탐색이 필수적이며, 도덕성 점화와 같이 도덕적 행동을 각성시킬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가 이어져 학교 및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과 사회의 도덕 수준 발달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같은 궁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도덕적 판단력이 아닌 이의 충돌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을 직접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도덕성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을 통한 자기보고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왔다(김남호, 정경미, 2017). 우선 도덕적 행동보다는 태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도덕적 판

단력과 도덕적 행동 간 상관이 낮다는 보고(Blasi, 1983; West, Ravenscroft, & Shrader, 2004)는 도덕성 연구 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요구특성 및 응답 편향의 문제를 들 수 있다(Goyder, 1986). 설문은 그 자체로 연구 가설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므로 연구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도덕성 연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에 대한 기대나 평가의 영향이 크므로 반응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컴퓨터 과제는 연구 참가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이 갖는 해석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를 포함해 유사한 컴퓨터 과제를 사용한 연구들(김남호, 정경미, 2017; 김수빈 외, 2016)은 이 컴퓨터 과제가 도덕적 행동의 측정에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시 점화 조건의 역 균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덕성 점화의 영향력을 해석하는 데 다소 제한적이다. 즉, 점화 메시지가 일괄적으로 2차 자문에만 제시됨으로써 순서에 따른 효과나 기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행에서의 부정직한 행동에 따른 죄책감을 점화 효과와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 중 일부에게 도덕적 점화 메시지를 먼저 제시할 경우, 이후의 도덕적 점화가 없는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일정 수준 이상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과보호 양육의 특성상 전체 참가자의 분포 중 상위에 해당하는 소수의 집단을 선별하여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점화 메시지의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집단 간 설계 또는 역균형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과보호 양육 태도의 일반적인 영향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우선,

도덕성 발달에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모와 자녀는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상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 기질이나 정서 및 성격적 특성 등 도덕성 발달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통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보호 양육 태도의 양상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도덕성 발달은 연령 및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 및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과보호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과보호 양육이 다양한 속성과 차원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과보호 양육 태도 중 어떤 요소가 자녀의 도덕적 행동 및 기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윤성연과 정경미(2014)는 시험 부정행위를 한 부정직 집단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정직 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과보호 요인 중 체면 중시, 동일시를 높게 지각했지만, 부와 모의 성취지향과 통제 요인은 자녀의 부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이정훈(2008)은 어머니의 통제가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 연구의 특성상 참가자의 수가 적어 과보호 하위 요인에 따른 추가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탐색이 이루어진다면 과보호와 도덕적 행동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 집단과 비과보호 집단 간의 도덕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문가 역할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설계하였는데, 이는 실제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자주 겪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도덕적 행동은 사익 추구 행동뿐만 아니라 규칙 위반

행동이나 친사회적 행동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하므로, 개인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도덕적 행동이나 판단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의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나 기타 상황을 실험적으로 설정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과보호 양육 태도와 청소년들의 도덕적 행동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과보호가 곧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 전반의 구성원 및 리더로 활동할 청소년들의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가정 내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가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과 중·고등학생 대상 자율성 증진 교육 등 청소년의 도덕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찾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민주 (2013). 컴퓨터주 청소년과 가정주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 부모의 양육행동 및 외현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 (3), 1-30.
- 김남호, 정경미 (2017).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가 사익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발 공개와 강제 공개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23-39.
- 김수빈, 김지혜, 정경미 (2016).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가 자문행동에 주는 효과: 자문가역 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1), 1-18.
- 김종훈 (2012). 친환경 행동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활성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13(2), 137-158.
- 박병기, 임신일 (2010). 시험불안 관련변인의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4(4), 875-894.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현상과 심리적 기반.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방희정 (2000).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41-65.
- 윤성연, 정경미 (201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과 자녀의 도덕성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 (4), 307-328.
- 이명희, 권지혜 (2009. 11. 5). 자녀 맴돌며 일일이 간섭...‘헬리콥터 부모’ 늘어난다. *국민일보*.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357988>
- 이성희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화, 김지현, 임소연, 채명옥, 이해림, 오진아 (2014).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0(4), 237-246.
- 이정훈 (2008).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783-818.
- 정경미, 윤성연 (2015). 고등학생용 한국 과보호 양육척도(K-POS)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1), 1-26.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종화 (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 273-294.

- 조인호 (2012).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접적 양육태도와 도덕성의 관계. *미래 교육학연구*, 25, 95-130.
- 최미혜 (2015). 부모의 헬리콥터형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친구관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GRI 연구논총*, 17(2), 181- 205.
- 하영희, 김경연 (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Aquino, K., Freeman, D., Reed II, A., Lim, V. K., & Felps, W. (2009). Testing a social-cognitive model of moral behavior: The interactive influence of situations and moral identity cent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23-141.
- Bandura, A., & Walters, R. H. (1963). *Social learning theory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rber, B. K., Stolt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argh, J. A., & Chartrand, T. I. (2000). Studying the mind in the middle: A practical guide to priming and automaticity research. In H. T. Reis & C. 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pp. 253-28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ry, C. M., & Wentzel, K. R. (2006). Friend influence on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and friendship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153-163.
- Bednar, D. E., & Fisher, T. D. (2003). Peer referencing in adolescent decision making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dolescence*, 38(152), 607-621.
- Biddle, B. J., Bank, B. J., & Marlin, M. M. (1980). Parental and peer influence on adolescents. *Social Forces*, 58(4), 1057-1079.
- Blasi, A. (1983).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2), 178-210.
- Cain, D. M., Loewenstein, G., & Moore, D. A. (2005). The dirt on coming clean: Perverse effects of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4(1), 1-25.
- Carlo, G., Fabes, R. A., Laible, D., & Kupanoff, K.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behavior II: The role of social and contextual influenc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2), 133-147.
- Carlo, G., McGinley, M., Hayes, R., Batenhorst, C., & Wilkinson, J. (2007). Parenting styles or practices? Parenting,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2), 147-176.
- Church, B. K., & Kuang, X. J. (2009). 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and (costly) sanctions: Experimental evidence.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8(2), 505-532.
- Cline, F., & Fay, J. (1990). *Parenting with love and logic: Teaching children responsibility*. Colorado Springs, CO: Pinion Press.
- Eberly, M. B., & Montemayor, R. (1999). Adolescent affection and helpfulness toward parents: A 2-year follow up.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226-248.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al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Fabes, R. A., Carlo, G., Kupanoff, K., & Laible, D. (1999). Early adolescence and prosocial/moral

- behavior I: The role of individual processe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1), 5-16.
- Gibbs, N. (2009, November 20). The growing backlash against overparenting. *Time Magazine*. Retrieved from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171,1940697,00.html>
- Goyder, J. (1986). Surveys on surveys: Limitations and potentialities. *Public Opinion Quarterly*, 50(1), 27-41.
- Greenwald, A. G., Draine, S. C., & Abrams, R. L. (1996). Three cognitive markers of unconscious semantic activation. *Science*, 273(5282), 1699-1702.
- Gunnoe, M. L.,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9). Parental religiosity,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199-225.
- Hart, D., Atkins, R., & Ford, D. (1998). Urban America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mor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513-530.
- Hart, D., & Carlo, G. (2005).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3), 223-233.
- Jung, W. S., & Villegas, J. (2011).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involvement, and nicotine dependence on anti-smok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Health Marketing Quarterly*, 28(3), 219-231.
- Kim, Y. H., & Cohen, D. (2010). Information, perspective, and judgements about the self in face and dignity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4), 537-550.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 & Row.
- Krevins, J., & Gibbs, J. C. (1996). Parents use of inductive discipline: Relations to children'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263-3277.
- Larson, R., & Richards, M. H. (1991).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anging developmental contexts. *Child Development*, 62, 284-300.
- Leahy, R. L. (1981). Parental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and self-image disparity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80-594.
- Levy, D. M. (1938). Maternal overprotection. *Psychiatry*, 1(4), 561-591.
- Locke, J. Y., Campbell, M. A., & Kavanagh, D. (2012). Can a parent do too much for their child? An examination by parenting professionals of the concept of overparenting.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2(2), 249-265.
- Luebke, N. R. (1987). Conflict of interest as a moral category. *Business & Professional Ethics Journal*, 66-81.
- Mazar, N., Amir, O., & Ariely, D. (2008). The dishonesty of honest people: A theory of self-concept mainten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 633-644.
- Meyers-Levy, J., & Maheswaran, D. (2004). Exploring message framing outcomes when systematic, heuristic, or both types of processing occu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1), 159-167.
- Moore, D. A., Tetlock, P. E., Tanlu, L., & Bazerman, M. H. (2006).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case of auditor independence: Moral seduction and strategic issue cycling.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10-29.
- Padilla-Walker, L. M. (2007). Characteristics of mother child interactions related to adolescents' positive values and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675-686.
- Padilla-Walker, L. M., & Nelson, L. J. (2012). Black hawk down? Establishing helicopter parenting as

- a distinct construct from other forms of parental control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5, 1177-1190.
- Palmer, E. J., & Hollin, C. R. (1997).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own parenting on sociomoral reasoning, attributions for criminal behaviour,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2), 193-197.
- Regnerus, M. D. (2003). Moral communiti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Religious contexts and community social control. *The Sociological Quarterly*, 44(4), 523-554.
- Roscoe, J. T. (1975). *Fundamental research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ah, S., & Loewenstein, G. (2014) Nothing to declare: Mandatory and voluntary disclosure leads advisor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Psychological Science*, 25(2), 575-584.
- Saltzstein, H. D. (1994). The relation between moral judgment and behavior: A social-cognitive and decision-making analysis. *Human Development*, 37(5), 299-312.
- Schonert-Reichl, K. A. (1999). Relations of peer acceptance, friendship adjustment, and social behavior to moral reasoning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2), 249-279.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21-279.
- Shariff, A. F., & Norenzayan, A. (2007). God is watching you: Priming God concepts increases prosocial behavior in an anonymous economic game. *Psychological Science*, 18(9), 803-809.
- Smetana, J. G. (1999). The role of parents in moral development: A social domain analysi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311-321.
- Smetana, J. G., & Turiel, E. (2003). Moral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In G. R. Adams & M. Berzonsky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247-268). Oxford: Blackwell.
- Tavecchio, L. W. C, Stams, G. J. J. M., Brugman, D., & Thomeer-Bouwens, M. A. E. (1999). Moral judgement and delinquency in homeless you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1), 63-79.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4(2), 67-80.
- Ungar, M.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Helping parents provide the right amount of risk and responsi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 258-271.
- van Ingen, D. J., Freiheit, S. R., Steinfeldt, J. A., Moore, L. L., Wimer, D. J., Knutt, A. D., ... & Roberts, A. (2015). Helicopter parenting: The effect of an overbearing caregiving style on peer attachment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8(1), 7-20.
- Walker, L. J., & Hennig, K. H. (1999). Parenting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3), 359-374.
- Welsh, D. T., & Ordóñez, L. D. (2014). Conscience without cognition: The effects of subconscious priming on ethic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3), 723-742.
- West, T., Ravenscroft, S., & Shrader, C. (2004). Cheating and moral judgment in the college classroom: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54(2), 173-183.
- Wobbrock, J. O., Findlater, L., Gergle, D., & Higgins, J. J. (2011). The aligned rank transform for nonparametric factorial analyses using only ANOVA procedures.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43-146.
- Yeh, C. J., & Huang, K. (1996). The collectivistic

김해정 · 정경미 · 이승아 /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 태도에 따른 도덕적 행동의 차이

nature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mong  
Asian-American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31  
(123), 645-661.

1 차원고접수 : 2018. 04. 14.

수정원고접수 : 2018. 10. 25.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6.

## Differences in moral behavior associated with perceived parental overprote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Hye-Jeong Kim<sup>1)</sup>

<sup>1)</sup>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Kyong-Mee Chung<sup>2)</sup>

<sup>2)</sup>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ung Ah Lee<sup>2)</su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verprotec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moral behavior, and also identified how morality priming influences their behavior. Korean-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K-POS) was administered to 1,035 high school students. 33 students who reported high K-POS score (1.5 SD above the mean) were assigned to overprotected group and non-overprotected group of 33 students was randomly selected from the students reporting scores within the average range.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ovide consultation to a partner under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verprotected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pursue private profits than control group. However, the pursuit of private profits in overprotected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morality priming. These results implied that parental overprotection negatively affect adolescents' moral behavior and priming has an effect on promoting moral behavio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overprotection, moral behavior, morality priming, high school student, conflict of interest*